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청년액션’ 메타버스 출범식 예고보도(2021.7.2.)

7/7(수),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청소년·청년이 만든 ‘청년액션’이 메타버스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7월 7일 수요일 11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출범식을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중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출신학교 차별문제는 단순히 채용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직무역량보다 출신학교가 채용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니 청년들은 막막해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을 미리 인지한 청소년들은 소위 '인서울'에 해당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일찍부터 입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출신학교 차별문제는 채용뿐 아니라 입시의 풍토까지 악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청년, 청소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모임이 바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청년모임인 '생각우체부'에서 올해 신설한 TF팀입니다.

2017년 7월, 정부와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방안이 마련된 이래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대학도 마찬가지로 모두 입사지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립대학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시행률이 미비할뿐더러 오히려 지원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채용에서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 의원이 발표한 전국 92개 사립대학의 직원 채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75%(69곳)의 대학의 입사지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있었고, 76%(70곳)의 대학이 채용공고상 학력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채용 심사항목에서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제가 존재하는 대학이 전체의 30%(28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채용절차법상 금지되고 있는 용모 평가, 가족 사항, 출신지역을 채용 심사에 반영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 제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학력으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 공정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기준 및 인식 확산을 위해 활동합니다. 구성원 모두 사는 지역부터 나이, 직업까지 다 다르지만 학력주의라는 견고한 벽을 허물고자 하는 열정은 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에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은 7월 7일 11시 메타버스 출범식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은 출신학교 차별의 억압을 종료하고 우리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는 선언문 선포와 시민들과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들로 기획했습니다. 이 출범식을 시작으로 출신학교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액션의 출범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댄지라 이것저것 준비하고 꾸려나가야 할 것들도 많지만, 출신학교 차별해소라는 한 가지 목표만으로 스스로 모인 선원들인 만큼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의 첫 향해에 응원과 기대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2021. 7. 2.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팀장 김은중(02-797-4044/내선번호 419)